

지 회 전 화 반 호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06-3599
 경기 (0333)666-6091 강원 (0361)481-3876
 충북 (0441) 43-1904 충남 (042) 271-7818
 전북 (0671)625-2302 전남 (062) 367-1161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42-6573
 제주 (064) 22-6907 인천 (032)762-7797

양 봉 협 회 보

1 9 5 8
 1996년 11월 25일
 월 간 < 비 매 품 >

발행인:정해운/ 편집인:김충겸/ 인쇄인:양광호/ 발행처:(사)한국양봉협회 110-126 서울특별시 중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01호 전화(02)763-1372·5903·FAX:764-1297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제정의 의미

시장개방화 농민의욕 제고

농민 스스로 농업발전 앞장설 계기로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11일 서울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김영삼 대통령(대통령 치사 2면 참조)을 비롯 각 정당대표와 국회 농림수산위원, 농림부장관, 농·축협조합장, 농민단체 대표, 농민 등 총 4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을 하늘에 알리는 고천(告天)의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농업인들은 근면과 창의로 세계에서 일등가는 전문 경영인이 되어 우리 농업이 세계 일류의 첨단산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11월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침체분위기에 젖어있는 농민들의 의욕을 새롭게 북돋우고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는데 뜻이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11월11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날을 농민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가져오면서 「상공의 날」이나 「근로자의 날」등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축제일을 제정해 줄 것을 희망해 왔다.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응,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농민들 스스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권농일

행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권농행사를 해 왔으며 권농일은 임금이나 왕비가 직접 쟁기를 잡거나 누에에 뽕잎을 먹이는 親耕·親蠶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때는 해마다 음력 3월20일 무렵이면 임금이 쟁기로 밭을 가는 親耕의식을 가졌으며 해방직후에는 6월15일을 권농일로 정해 기념행사와 모내기 행사를 실시해 오다가 모내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날짜가 몇차례 바뀌었다.

지난 85년 이후에는 5월의 넷째 화요일을 권농일로 정해 전래의 의미를 계승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날」로 대체되면서 시기도 모내기철이 아닌 수확철로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권농일은 한자의 뜻 그대로 농업을 권장하는 행사에 그쳤지만 「농업인의 날」은 새로운 환경속에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농민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정부는 이를 충실히 뒷받침할 것임을 함께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주식인 쌀자급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 농업과 「영원한 고향」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애정

을 되살리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농업은 흙과 물,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 생명을 틔우고 키우며 보호하는 생명산업이자 자연과 국토를 보전하는 환경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리를 책임지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농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이른바 재야농민단체들도 대거 참석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이 갖는 소중한 의미가 한층 새롭게 부각됐다.

민관이 매년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기로 한 것은 이날이 한자로 土土土日(土자와 一자를 아래위로 합침)이어서

농업의 바탕이자 생명의 뿌리인 땅을 상징할 뿐 아니라 추수가 지난후여서 수확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데 따른 것이다.

또 농민의 날이 아닌 「농업인의 날」로 정한 것은 농민들도 이제 농업전문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게 농정당국의 설명이다.

해마다 맞이하게 될 농업인의 날이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한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게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97정부예산에 2천8백만원 확보

양봉농가 교육·전시홍보 위해

새해 정부예산안에 양봉산업 육성 교육비 2천8백만원이 상정되어 사상 처음으로 국비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본협회는 97년 이후 벌꿀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봉농가의 기술교육 실시와 국내 및 외국 전시회를 통한 국산 벌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봉농가 교육 실시로 양봉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로부터 신뢰성 회복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는 내용의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강조한 대정부 예산지원 신청을 지난 4월17일 정식으로 제출한데 따른 양봉업계에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낸 또 하나의 성과를 올렸다.

본협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본

사업계획이 관계당국간 숙의 심의와 조정 등의 과정에 난항을 거친 끝에 나온 이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97정부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축발기금으로 쓰여질 본 예산의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부, 자금 수요자는 본협회로 돼 있으며 전국 2,70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9회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21,727천원이 배정되고, 또 지난해 정기총회때 전남지회가 유치 개최했던 바 있는 광주 양봉산물전시회와 같은 행사비용으로 6,275천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다.

본 예산의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의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에 의한 것이며 축산정책개발 및 교육홍보사업의 양봉부문에

9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요가축외에 기타가축 부문에서는 이번 우리가 달성한 양봉부분 교육홍보비 지원이 처음이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예산지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제 정부당국도 우리 양봉부문에 배려하는 정책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본협회는 97년 내에 수행해야 할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해야 하고 농림부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을 본협회에 다시 시달함으로써 본격 집행하게 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규격꿀병 발매안내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독창적이고 견고한 새로운 규격꿀병을 생산·공급하게 됨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 판매망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서 고객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2의 창업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본사제품과 유사한 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두산제품인지 꼭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꿀병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규격 / BOX당 수량

구분	3kg	2.4kg	1.8kg	1.2kg	0.6kg	0.3kg
수량	9	12	12	15	15	48
구분	신2.4kg	신1.2kg	신0.6kg	신신1.2kg	50g	
수량	9	16	32	16	100	



두산유리 규격꿀병 총판

(주)대한양봉산업

☎ 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242-2
 ☎ 817-8127 FAX:817-8128